

번역과 의미론

박 용 삼*

- I. 머리말
- II. 번역사에 나타난 여러가지 번역이론
- III. 번역에 대한 몇가지 개념과 정의
- IV. 번역과 의미론
- V. 번역이론의 여러가지 관점
- VI. 번역활동의 목표어로서 한국어 온도
형용사의 의미문제
- VII. 맺는말

I. 머리말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사건 이래로 인류는 언어의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미암아 인간상호간의 교류에 장애를 받아 왔고 또 의사소통 *Kommunikation*의 방해를 제거하려고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부족간의 물물교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무역, 정치, 외교, 문화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이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 언어공동체 *Sprachgemeinschaft*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중재하는 사람이 통역자 *Dolmetscher* 내지는 번역가 *Übersetzer*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번역은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에 속한다. 그러므로 번역은 정치적, 사회적 교류에서 전쟁과 약탈행위에서 평화로운 여행과 무역에서 무엇보다 철학과 과학과 문학의 전달에서 전체 정신사는 거의 커다란 번역의 흐름과 물결에 따라 관찰되고 분류될 수 있기도 하다.

수천만의 한국어 언어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번역본을 읽고 있으며 수만의 사람들이 세계 여러 언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들 중에서 정말 언어의 본질, 다시 말해서 번역하려는 어떤 언어의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문법적 구조와 그 낱말들의 의미론적 구조를 주지하고, 번역사와 번역이론을 체험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번역가들은 소수에 불과 하다고 생각된다. 해가 더해갈 수록 우리나라의 서적 출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엄청난 수의 번역본이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번역

* 본교 독어독문학과 조교수

이론에 대한 전문서적이거나 번역편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조차 번역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 있다. 구미의 대학에서는 어문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부에서도 번역이론 강좌를 필수적으로 수강하고, 외국어로 된 전문서적 이해와 번역에 대한 실제를 연구하고 있다. 또 여러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진 번역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언어학적 논문들 가운데서도 번역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때에 「번역과 의미론」이란 제목을 가지고 번역에 관한 문제를 서술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루려고 하는 논제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문제성이 많기 때문에 한편의 짧은 논문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우선 불모지와 같은 번역학 *Übersetzungswissenschaft* 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것을 확신하면서 만용을 삼가지 않고 있음을 언급해 둔다.

본 논문 제 1 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번역이론이 번역사의 흐름속에서 논의되었는가를 관찰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번역의 사상을 정리해 보고 제 2 장에서 번역에 관한 몇가지 개념과 정의를 해설해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제목과 일치하는 제 3 장에서는 언어학에서 취급한 의미론 *Semantik* 의 문제를 번역이론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de Saussure, Hjelmslev 등의 번역에 관한 생각을 서술하고, 제 4 장에서는 최근의 번역이론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 번역학의 여러가지 관점에 따른 이론을 소개해 보려고 했다. 여기서는 특히 E. Coseriu 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번역이론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그의 몇몇 언어학자들의 번역이론이 요약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 5 장에서는 번역의 목표어 *Zielsprache* 로서 한국어의 온도형용사 *Temperaturadjektive* 의 의미문제를 서술해 보려고 시도했다.

본 논문을 작성할 때 특히 번역사의 기술부분은 G. Mounin 의 책 *Die Übergetzung* 에서 뽑아 쉽게 해설을 했고, 한국어의 온도형용사에 관한 서술은 저자의 학위 논문 「*Zur strukturellen Semantik des Adjektivs im heutigen Deutsch und Koreanisch. Eine kontrastive klassematische Untersuchung*」에서 인용설명했음을 언급해 둔다.

Ⅱ. 번역사에 나타난 여러가지 번역이론

무슨 학문이든지 그 학문을 연구하기전에 먼저 그 학문의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역사를 읽어야 할것이다. 수학물리, 화학같은 자연과학의 이론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들 학문의 발달과정인 역사를 읽을 필요가 있고, 철학을 연구하기 전에 철학사의 탐구가 전제된다. Andrei W. Fedorow 는 인간의 가장 오랜 활동가운데 하나인 번역행위에 필수적인 번역사의 부재를

말하고 번역이론을 위해서 번역사는 필요불가결한 전제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번역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받아 들인다고 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번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번역이론의 연대기적 서술을 해 보려고 한다.

기원전 2세기 전부터 앓시리아, 바빌론, 헷과 같은 소아시아의 국가들에서 에집트어나 아람어 서신을 위한 특수한 서기들이 있는 관청 비슷한 것이 있었다.

주전 3세기에 Ptolemäus Philadelphos 가 Septuaginta(70인 성경번역)를 재료로한 구약성경 번역을 시도했는데, 이 번역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고 다만 몇세기 후에 Hieronymus 와 Augustin 과의 서신교환에 나타난 이 번역에 대한 비평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후 기원전 1세기에 Cicero 는 번역활동의 향후 2천년을 지배한 다음과 같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웅변가로서 Demosthenes 와 Äschines 의 연설을 번역하면서 얻은 그의 번역이론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연설)을 어떤 단순한 번역자(ut interpres)와 같이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작가(sed ut orator)로서 묘사했다. 나는 각각의 낱말을 어떤 새 낱말로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verbo verbum reddere).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나는 유지했다. 자세히 말해서, 나는 독자에게 동일한 낱말의 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의 동일한 비중을 제공하는 데서(non enim enumerare sed tamquam adpendere) 출발했다.”²⁾

원문의 낱말소리 *Wortlaut* 에 충실해야만 하는지 혹은 원문의 뜻 *Sinn* 에 충실해야만 하는지 하는 문제제기와 함께 Cicero 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Cicero 가 말하고 있는 낱말의 동일한 비중은 곧 낱말의 동일한 의의 *Sinn* 이다. 번역에 대한 Cicero 의 이러한 표현은 2천년 후의 지금에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후주 시대에 있어서는 Hieronymus 의 동시대이며 친구인 Evagrius 가 그의 번역서인 「Antoniusvita」의 서문에서 Cicero 의 입장을 보여 주는 번역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약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낱말 대 낱말로 실행되어 진다면, 그 번역은 그 뜻을 숨기고 만다. [...] 낱말이 몇개 빠져도 되지만 뜻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된다.³⁾

수많은 현대의 번역론 내지는 번역모델 속에 Evagrius 의 몇줄 안되는 서술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는 언제나 두 언어 사이의 언어적 기호 *Zeichen* 가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Sinn* 의 빠짐 없는 전위를 문제시 하고 있다.

Vulgata 성경의 번역자이며 이 시대에 있어서 번역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Hieronymus 는

1) G. Mounin: Di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Anwendung, München 1967. S. 22.

2) G. Mounin, S. 24.

3) G. Mounin, S. 25.

「De optime genere Interpretandi」라는 번역연구의 이론적인 논문을 발간 했는데, 이것은 어릴때 친구이며, 연구동료인 Pammachius 에게 한 서신 “Br ef an Pammachius”으로 번역에 관한 Cicero 의 명제를 다룬 경험이 풍부한 토론이 그 서신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읽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⁴⁾ 그의 핵심적인 견해는 “Non verbum de Verbo sed sensum exprimere de sensus”라는 말에 요약되어 있는데, Cicero 의 견해와 비교해서 뜻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좀더 구체적인 언어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세기에는 유대, 아랍, 기독교문화가 만나는 장소인 스페인의 Toledo 가 번역의 중심지였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Almagest des ptolemäus, Maimonides 와 Averroes 의 작품, 코란등을 주로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들은 스페인인, 영국인, 개종한 유대인인 Mozaraber 등인데 이들 중에 Gehard Von Cremona 는 가장 유명한 사람중에 하나였다. 이 시기(12세기말)에 Maimonides 가 카이로에서 Samuel Ibn Tribon von Lunel 에게 한 서신 가운데서 아랍과 유대 번역가들의 오랜 체험을 Cicero 의 제언과 7세기 이미 Hieronymus 가 했던 제언에 대해서 그의 조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며 동시에 때에 따라 주어지 있는 한 낱말을 다른 낱말로 옮길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큰 수고를 하게 될 것이며 애매하고 복잡한 번역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되고 오히려 번역자는 먼저 한번 사고의 진행과정을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분해하고 번역되어지는 말로 이해하고 명백해 지도록 소개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때때로 선행하는 것과 뒤따라오는 것을 변경하면서 또한 한 낱말을 여러 낱말로, 여러 낱말을 하나의 낱말로 묘사하면서 사고의 발전과정이 완전히 명백해져고 조망하기 쉬우며 표현이 이해적이고 번역하려고 하는 언어에 어울릴 때까지 몇몇의 표현을 빼어 버리고 다른 표현을 써 넣음으로서 달성된다.⁵⁾

여기서도 역시 낱말 대 낱말의 번역이 거절되고 있으며 출발어 *Ausgangssprache* 텍스트의 바른 내용이 전달되어 목표어 *Zielsprache* 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낱말의 가감, 문장론적인 변경이 불가피함을 보여 주고 있다. E. Kaschmieder 가 언급하고 있는것 처럼 번역과정에 있어서는 기호 *Zeichen* 와 의미 *Bezeichnetes* 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에서 생각되어진것 *Gemeintes*(E. coseriu 의 의미 Sinn 과 비교하라)이 문제시 된다고 본다. E. Koschmieder 가 들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독일어 예문에서 이 Gemeintes 의 개념이 명백해진다: 즉 Das ist leicht 라는 문장에서 leicht 라는 형용사의 Bezeichnetes 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옳게 목표어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leicht 가 “가벼운”인지 “쉬운”인지를 파악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장의 의의이며, 이것이 목표어에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4) 이 서신은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Wolfgang Buchwald 가 독일어로 번역했다. Hans Joachim Störig 가 편집한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S. 1—13에 수록되어 있다.

5) G. Mounin, S. 27.

다.⁶⁾

중세에 있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Toledo 학파의 수준을 보여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Dante 에게서와 같이 번역의 문제를 다룬 체계적인 토론을 대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convivio* 에 주목의 가치가 있는 점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Hieronymus의 다음과 같은 관찰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G. Mounin은 말하고 있다.⁷⁾ 즉 어떤 언어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번역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Homer의 작품을 낱말대 낱말로 번역해도 괜찮겠다.” Dante가 직접 이 구절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Dante는 시인으로서 그의 경험을 부요케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을 때이다.⁸⁾

시·예술이 한번 조화를 이룬 것은 결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질 수 없다. 모든 감미로움과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호머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져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이다. [...] 그리고 만일 그 쇠귀가 히브리에서 그리스어로 그리고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진다면, 시편 쇠귀가 더 이상 음악과 화음의 감미로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Dante의 이 언급은 전체적인 번역행위의 불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나 이것은 주로 시·예술 분야에 주로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번역과는 달리 특히 운(Reim, Klang)을 맞추어 놓은 시를 번역하면 내용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운이 깨지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때 사람들은 보통 개작 *Nachdicht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세는 주로 종교적 번역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번역에 있어서 성문서(성경)는 신의 말씀으로서 불가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문서를 번역해야 할 경우에는 낱말대 낱말, 문장의 구조대 구조의 방식을 유지했다. Hieronymus가 신학자들과 교회번역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작성했다: “성서에 있어서[……]낱말의 자리는 신비의 것이다.”⁹⁾ 사람들은 각각 문장 하나 하나의 번역에 있어서 낱말의 숫자를 유지하는 엄격한 요청을 하고 있다. 지배적인 생각은, 어떤 성문의 낱말들은 차례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충실성을 보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인적인 해석에 의해서 변질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번역본에서 많은 주석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와서 성문서 번역에서 오는 문제를 통해서 번역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E. A. Nida의 여러 논문에서 이 이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는 「번역의 본질」 *Das Wesen des Übersetzens*에서 신약성경의 원본인 그리스어 낱말과 문장구조를

6) *Übersetzungswissenschaft*/hrsg. von Wolfram Wils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S. 48-59.

7) G. Mounin, S. 28.

8) Ebenda, S. 28(제인용)

9) G. Mounin, S. 192 주 25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영어 번역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예를 들고 있다.¹⁰⁾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가운데 표현된 Holy Spirit of promise(우리말 성경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다)이다. 영어 Promise 나 우리말의 약속이라는 낱말은 모두 행위를 표시하는 명사로서 모두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자를 필요로 하게된다. 그래야만 영어나 한국어의 문장구조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도 동사적인 표현이 정상적이다: (God) Promised the Holy Spirit(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다.¹¹⁾ 또 원문에서 사용되었던 낱말이나 관용적 표현을 그대로 목표어로 옮겨 놓았을 때 출발언어에서 생각되었던 것이 아닌 전연 다른 내용이 목표어 내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시 성경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낱말대 낱말로 번역된 관용적 표현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롬12: 21)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인데 이 표현을 콩고의 한 부족에서는 그들의 적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라는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이 어떤 목표어에서는 낱말의 의미만이 옮겨져 있고 의의 내지 “생각되었던 것”은 이해되지 않은 결과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있어서 번역활동의 현상은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각 나라가 고유의 국가언어 *Nationalsprache* 를 가지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언어들인 행정, 문학, 법률, 외교, 철학, 과학의 영역에서 높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정되어졌고, 서적 인쇄술이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아랍어와 히브리어는 더욱더 알지 못하는 독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켰다. 여기에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고, 성경을 새로운 국가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 당시 (1522—1534) M. Luther 는 최초로 성경전서를 독일말로 번역하였다. 동시에 그는 「번역활동에 관한 서한」 *Sendbrief vom Dolmetschen* 을 썼는데, 이 서신에서 그는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²⁾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릇된 기독교인이나 또는 유대인은 일찍이 복음서를 번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출발어로 부터 문자(낱말)가 아닌 의의를 목표어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Luther 는 지식인이나 교양인이 사용하는 라틴어의 문자보다는 오히려 집안에 있는 어머니, 골목안에서 뛰노는 아이들, 시장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관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과정은, 더우기 전세계에서 기독교의 외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인 발전은 성경번역의 역사에서(오늘날까지 1109개 언어로 번역됨) 추론될 수 있다는 것과 독일어의 최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이 번역과 함께, 다시하면 Martin Luther 의 성경 번

10) E.A. Nida, Das Wesen des Übersetzens, in: Übersetzungswissenschaft(hrsg. von Walfram Wilss-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Wege der Forschung; Bd. 535) S. 123—149.

11) Ebenda, S. 126.

12) in: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S. 14—32.

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겠다.

과거와 비교해서 오늘날 수많은 번역 이론들이 발표가 되고 번역에 종사하는 인구도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의 번역이론 내지 방법론에 있어서 고전이나 중세시기의 그것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 세분되고 세련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뒷장(제 4 장)에서 최근 번역이론에서 가장 명석하고 인기있는 몇몇 번역이론가의 토론을 설명해 보았다.

20세기에 와서,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번역의 의미는 대단하며, 번역을 필요로 하는 인구나 기관은 엄청난 수에 달하고 있다. 모든 정보통신의 관리국에서, 즉 국제통신소에서, 편집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번역이 되어지고, 외교적인 파견에서, 또 국제회의의 경우에도, 모든 국제조직에서 국경과 세관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국제동맹의 직무와 군사적 직무에서, 외국 영화를 보거나, 외국어로 된 신문이나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고, 매일 매일의 사업에서, 연구를 위해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번역을 한다. 그리고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등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번역을 하는데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게 인간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번역에 과연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겠는가? 번역은 어떤 법칙에 따르며 철학적인 사상과 시어를 손실없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은 계속해서 토론되고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번역에 대한 몇가지 개념과 정의

13세기 이래로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번역에 대한 슬어는 불어의 *translater*, *translateur* 그리고 *translation* 인데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서 오늘날까지도 *to translate* 와 *translation* 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구술적인 번역과 문자적인 번역을 *interpres*, *interpretari* 로 표시했는데 불어에서는 12세기 이래로 구술적인 번역을 *truchement* 이라는 낱말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용어외에도 “무엇을 저편으로 옮긴다”,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전한다”,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표현을 수송한다”는 개념들이 생겨났는데 모두 동일한 은유에 기초하고 있다. 라틴어 *traduco* 와 *transfero*(과거분사 *translatus*), 이탈리아어 *tradurre*, 불어 *traduire*, 독일어 *übersetzen*, 러시아어 *perewodit* 그리고 동의어적인 은유어 *transfére* *transposer*, *übertragen* 등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

번역자의 임무가 특히 신학적 해석과 연관해서 점점 더 주의 깊게 정의 되어지고 기술되기에 이르렀다.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박사 Bryan Walton 은 1657년 그의 *Biblia Sacra Polyglott* 에서 오늘날도 부분적으로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세심하게 더 많은 번역

유형을 나누고 있다. 그는 Version (직역), Intertinearversion (행간직역), Translation (전위), Interpretation (해석), Paraphrase (의역)을 구별하고 있다. 이 분류는 고전 수사학에서 취급 되어졌는데 19세기까지 승인되어 남아 있으며 번역행위에 대한 끝없는 토론속에서 문학적, 언어학적 문제로서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이 분류에서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Version 과 Traduktion 사이의 차이이다. Abbe la Chapelle의 논문에서 G. Mounin은 다음과 같은 Version의 의미를 인용하고 있다. “Version은 낱말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것은 출발어의 구조에 밀접하게 붙어 있고 분석적인 방법을 취하나 반면에 Traduktion은 내용에 더 강하게 집중하고 구조와 이 언어의 관용어에 맞게 하면서 새 언어에 상응하는 형태속에 내용을 옮길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¹³⁾ 계속해서 G. Mounin은 Diderot의 백과사전(1765)에서 Version과 Traduktion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즉 Traduktion의 기교 *Kunst*는 필연적으로 Version을 전제로 한다. 그 때문에 학교에서 하게 하는 번역은 흔히 Version으로서 표시된다. 그러니까 Version은 Traduktion의 전단계로 생각되어지는데 Traduktion에 관계하는 것은 문체적인 세밀은 시인이나 결코 부정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삽입되거나 지워지거나 변화되어서는 안되는 Version도, Traduktion도 아닌 주석 *Kommentar*이 생겨난다. 이런 고전적인 개념구별에 의존하여 G. Mounin은 이 두 개념의 현대적인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불어에서는 traduction이 대학에서 작성되어진 것같은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작업이고, version, 특히 학문적인 원문, 이것은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이 작가인 번역자의 주관적인 작업이다. —어떤 사건을 보았을지도 모르는 한 증인의 필연적인 주관적 >Version<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아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다만 자기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불란서 작가들은 외국 저자들의 원위를 traduction으로서 보다는 Version으로서 불평없이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에서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 Paul Zech의 Villon을 번역이 아니고 개작 *Nachdichtung*으로서 표시할 때이다.”¹⁴⁾

지금까지 번역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몇가지 개념에 대해서 보았다. 이 개념들은 번역의 본래의 의미에서 볼 때 어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길 때 텍스트의 취급 방법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옮기기의 활동을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번역 활동(옮기기=Übersetzen)이라는 용어로 표시하고 이 활동에 대한 몇가지 정의를 토론해 보려고 한다.

번역활동의 정의를 위해서 먼저 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가지 요인 Faktoren과 제약 Bedingungen을 구체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즉 1) 텍스트(참가언어), 2)

13) G. Mounin, Die Übersetzung, S. 16

14) G. Mounin, Die Übersetzung, S. 17

출발어(Ausgangssprache AS) 텍스트를 목표어(Zielsprache ZS) 텍스트로의 수송의 과정, 3) AS-텍스트와 ZS-텍스트의 의사소통적인 배경, 4) 번역자, 5) 번역의 수취인 Empfänger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번역과정에서의 요인들을 살펴 보면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더나가서 번역과정에서 문제시되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지만(예를 들어, 의사소통적, 실용적, 과학·기술적인 관점등),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AS-텍스트의 내용이 ZS-텍스트로 손상없이 옮겨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한 낱말의 의미 *Bedeutung*, *Bezeichnetes* 가 아니라 낱말들이 결합되어 텍스트를 이루었을 때 그 텍스트의 생각되어진 것 *Gemeintes* 이 문제시 된다고 보여진다.¹⁵⁾ 이런 의미에서 E.Coseriu 는 텍스트만이 번역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번역되는 것은 낱말 *Zeichen*, *Bezeichnendes* 이 아니라 의의 *Sinn* 인 것이다.¹⁶⁾ 그는 독일어 *Guten Morgen* 도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이 텍스트의 번역에서 번역자는 각 낱말의 의미가 아닌 그 텍스트의 의의를 목표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Guten Morgen* 의 의미를 옮긴다면 “좋은 아침”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은 *Guten Morgen* 을 낱말이 좋은 아침에만 사용하는 인사말로써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날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한 번역은 “안녕하십니까”일 것이다. 이것이 *Guten Morgen* 이라는 텍스트의 의의가 되고 바로 이 의의가 목표어에 옮겨져야만 한다. 이 독일어의 표현은 불어로 *Bon matin* 이지만 올바른 번역은 *Bonjour* 이며 이것은 독일어의 *Guten Tag* 에 해당한다.

다음에서 몇몇 번역 이론가의 번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두 언어와 텍스트 중심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대동소이함을 볼 수 있다.

J.C.Catford 는 1965년 그의 저서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에서 번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텍스트의 개념이 중심에 있으며 AS-텍스트가 번역에서 ZS-텍스트로 대치되어지는 것이며 대치의 규준은 등가 *Äquivalenz* 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낱말이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내지 텍스트가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ranslation is an operation performed on languages: a process of substituting a text in one language for a text in another. (p.1)

Translation may be defined as follows: the replacement of textual material in one language(SL) by equivalent textual material in another language(TL). (p.20)[SL=Source Language, AS; TL=Target Language, ZS] The central problem of translation-practice is that of finding TL translation equivalents. A central task of translation theory is that of defining the nature and conditions of translation equivalence. (p.21)

15) E. Koschmieder, Das Problem der Übersetzung,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S. 50

16) E. Coseriu, Falsche und richtige Fragestellung,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S. 31

E.A.Nida와 ch.R.Taber는 그들의 공저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독일어 :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Bibelübersetzung, Weltbund der Bibelgesellschaften, 1969)에서 간단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Translating consist in reproducing in the receptor language the closest natural equivalent of the source-language message, first in terms of meaning and secondly in terms of style. (p. 12)

이 정의는 번역의 이중적 조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source-language message이고 다른 하나는 수취인 언어 receptor language이다. 번역자는 source-language message(AS-텍스트)에서 내용과 문체를 파악하고 그다음 ZS에서 자연스러운 일치 *natural equivalent*를 찾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W.Wilss의 저서 “번역학 문제와 방법론” *Übersetzungswissenschaft. Probleme und Methoden*에서 상당히 긴 정의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Übersetzen ist ein Textverarbeitungs- und Textverbalisierungsprozeß, der von einem ausgangssprachlichen Text zu einem möglichst äquivalenten zielsprachlichen Text hinüberführt und das inhaltliche und stilistische Verständnis der Textvorlage voraussetzt. Übersetzen ist demnach ein in sich gegliederter Vorgang, der zwei Hauptsachen umfaßt, eine Verstehensphase, in der Übersetzer den ausgangssprachlichen Text auf seine Sinn- und Stilintention hin analysiert, und eine sprachliche Rekonstruktionsphase, stilistisch analysierten ausgangssprachlichen Text unter optimaler Berücksichtigung kommunikativer Äquivalenzgesichtspunkte reproduziert. (p.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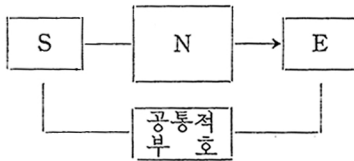
이 정의의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즉 번역과정에 있어서 번역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AS-텍스트의 내용과 문체의 분석에서 파악되어지는 이해의 단계와 AS-텍스트를 ZS-텍스트로 생산하는 재구조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의사소통적 등가의 최상의 관점에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IV. 번역과 의미론

번역과정에 있어서 번역되어야 하는 낱말의 의미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낱말 대 낱말의 번역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번역과정에서 우선 번역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출발어 *Ausgangssprache*의 언어기호 *sprachliche Zeichen*와 그 기호가 사용된 텍스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의 *Sinn*이다. 그러므로 번역과정에 있어서 낱말의 의미 연구로서 의미론 *Semantik*이 중요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실제에 있어서 번역과정에 의미론을 적용하므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지고 있음을 본다. 그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생겨나는 의미 문제를 제기하면서 번역과정의 본질을 규명해 보고 번역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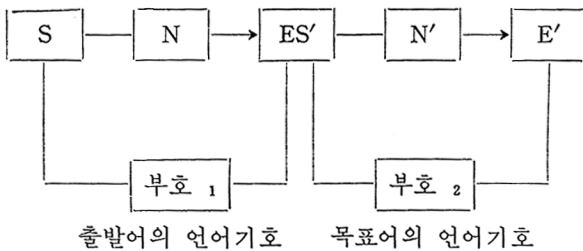
러가지 방법론을 서술해 나가는 것은 의의있는 일일 것이다.

공통언어 *gemeinsprache*의 영역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은 공통적인 언어기호 다른말로 표현하면 공통적인 부호 *Kode*를 사용한다. 이 의사소통의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Sender) : 보내는 사람
 N(Nachricht) : 소식, 정보
 E(Empfänger) :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S는 어떤 의도 Intention를 가지고 받는 사람 E도 이해할 수 있는 공통 부호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 작성된 텍스트 속에는 S가 의도한 어떤 정보나 소식이 포함되며 공통 부호를 사용하여 표현된 텍스트를 E가 받게되고 반응 *Reaktion*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의사소통은 이루어지게 된다. 1개국어 *intralinguale*로 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부호는 전문어, 특수어, 방언등 공통언어 지역 내에서의 상이한 언어층을 간과한다면 소식정보를 받아들여 이해하는데 장애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¹⁷⁾ 그러나 2개국어의 의사소통 *interlinguale Kommunikation*에서는 S와 E가 서로 다른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S와 E 사이에 번역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번역자는 S에 대해서는 E이고 E'(다른 언어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S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ES'로 표시할 수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



S : 최초로 보내는 사람
 N : 부호 1로 된 정보
 E : 최초로 받는 사람
 ES' : 번역자
 N' : 부호 2로 된 정보
 E' : 두번째로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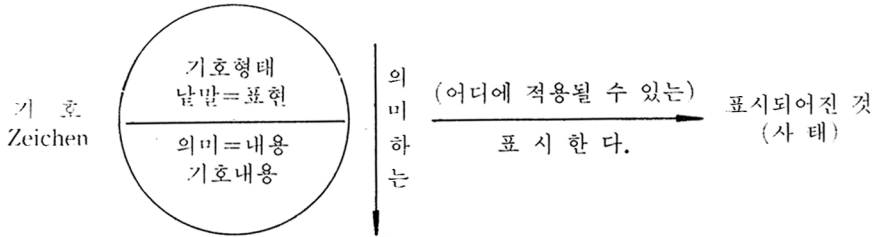
ES'는 부호 1과 부호 2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S와 E'사이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번역자(ES)는 S에 의해서 부호화된 N을 탈기호화 *Dekodierung*(기호를 풀어 내용을 이해하기)하여 정보소식을 이해하고 다시 E'의 언어인 부호 2로 기호바꾸기 *Umkodierung*(부호 1로 된 내용을 E'의 언어인 부호 2로 표현하기)과정에서 의미론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의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호 *Kode*와 연관해서 먼저 일반 기호이론에 대한 J. Al-

17) 1개국어 내에서도 고전어, 전문어 텍스트의 설명과정도 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brecht의 설명을 소개하려고 한다.¹⁸⁾

그는 먼저 구라파의 언어학적 의미론에서 통용되는 세 부분으로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논리학적 의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지않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서 그 모델을 약간 변형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어떤 기호의 “내용” *Inhalt* 내지 “의미” *Bedeutung*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나 사태의 부류와 동일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나누어서 연구해야만 하는 두개의 현상을 보게 되며 “내용”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미의 “존재양식” *Seinsweise*은 용의치 않은 존재론적 *ontologisch*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만 한다. 이 분야에서 대단히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개관하기 위해서 J. Albrecht는 다음과 같은 용어비교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호	기호형태	기호내용	표시된것(사태)	(누구에 의한)
	vox	conceptus	res	(스콜라학파)
signe	signifiant	signifié	chose	(Saussure)
sign		designatum	denotatum	(Morris)
	(Name)	Sinn	Bedeutung	(Frege)
		significatum	denotatum	(Passim, z.B.Kade)
	word	meaning	referent	(Stern)
	name	sense	thing	(Ullmann)
	Formative	Abbilder	objektive	(Neubert)
			Realität	
(Zeichen)	(Ausdrucksform)	(Inhaltsform)	(Inhaltssubstanz)	(Hjelmslev)

Albrecht는 Hjelmslev의 용어는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유추적인 구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Bedeutung”, “meaning” 또한 “signification” 같은 용어는 특히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Bedeutung”과 “meaning”은 위의 도표에서 Frege에 의해서 사용된

18) J. Albrecht, *Linguistik und Übersetzung, Romanische Arbeitshefte 4, Tübingen 1973. S. 20*

것처럼 논리학적 의미론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용어에서는 흔히 기호형태와 기호내용 사이에서 생겨지는 관계개념이 이해되어 진다. 또한 위의 도표에서 “Zeichenform”에 일치하는 “Zeichen”이라는 용어는 이 뜻에서 매우 자주 사용된다. 기호는 대체로 고립적이 아니고 다른 기호와의 결합에서 사용되어 진다. 기호는 기호체계 *Zeichensystem* 요소이다. 부호에 속하는 그러한 체계에서 Albrecht는 다음과 같은 세계의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 즉 기호내지 기호형태는 서로 배열할 수 있는 법칙성인 문장론 *Syntax*, 기호형태와 기호내용 사이의 관계 내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때 그때의 견해에 따라 기호와 표시된 것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미론 *Semantik*, 기호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용론(화용론) *Pragmatik*이다. 앞의 의사소통이 그림에서 소식·정보 N은 여기서 설명된 뜻에서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호사용의 한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Morris의 일반적인 기호론에서 그의 용어를 이것과 연관해서 *type* 과 *token* 을 구별하는데 이것은 de Saussure의 추증자들이 사용하는 *langue* 와 *parole*(독일어 *Sprache* 와 *Rede*)이며 생성문법에 대한 논문에서는 약간 뜻이 차이가 나지만 *Kompetenz* 와 *Performanz* 로 말하고 있다.

G. Mounin은 의미와 관련해서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¹⁹⁾

1) 출발어에서 표현되어진 것(표현)이 목표어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때는 출발어를 그대로 목표어에서 외래어 또는 차용어로 받아 들임으로서 해결되어진다. 우리말 가운데 번역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는 수 많은 외래어들이 바로 그것이다.

2) 외국 작품으로 부터 외래어나 차용어의 수가 너무나 크게 될 것을 겁을 내게 된다면 번역가는 그 낱말을 받아 들이지 않고 그 뜻을 새로운 언어로 옮기는 어떤 해결책을 취하는 버릇이 있다. 이 번역가들은 출발어에서 표시된 대상이나 개념을 주해속에서 기술하거나 정의했다. 문맥 자체에서 어떤 충분한 기술이나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번역가들은 이 길을 택했다. Lévi-Strauss는 그의 *Tristes tropiques*의 455페이지에서 영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특히 포르투갈어와 인디언어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대략 300개의 외래어를 사용했다. 이 중에서 200개는 괄호속에 번역 되었고 75개(영어, 라틴어, 포르투갈어)는 번역 되지 않았는데 그 저자는 독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약 30개는 그것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뚜렷하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다. 75개의 개념이 기술되거나 정의되었다.

3)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체념에 이르러 하는 의미의 전위 문제인데 이것은 낱말의 표현성 *Expressivität*의 문제로서 문학적 서정적 번역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불어의 낱말 *belette*, 이탈리아어의 낱말 *donnola*, 독일어의 낱말 *Schöntierle*의 규정할 수 없는 마력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독일어 *Sackgasse*, 이탈리아어 *vicola cieco* 속의 은유 *Metaphorik*을 어떻게 유지할

19) G. Mounin, *Die Übersetzung*, S. 62.

것이며 라틴어 *caecum vulnus*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적은 수의 문제들이 수백년 동안 실제적인 의미 문제에 대한 시선을 번역자들에게 차단해 왔다.

낱말이 어째서, 어떻게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리학에서 취급해 왔으나 점차 언어학의 중심 테마가 되기 시작했다.

F. de Saussure에 있어서는 낱말의 의미 문제가 중심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명백하게 설명되지 않았던 전통적인 견해를 설명했다. de Saussure는 비언어적인 물건 혹은 개념과 낱말 사이의 의미 연관 *Bedeutungszusammenhang*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물건과 개념의 표시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보기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불어의 낱말 *monton*은 동물도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도 표시하는 반면에 영어는 두 개념을 두개의 다른 기호로 나누고 있다. 즉 *sheep*와 *mutton*이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낱말은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구조되어진 전체의 체계 *System*의 부분이 지, 어떤 명명법 *Nomenklatur*의 고립된 단위도 아니고 모든 시대에 대해서 구별하는 어떤 사물의 구별적인 상표가 아니라고 de Saussure는 말하고 있다. “동일한 언어 내에서 유사한 표상 *Vorstellung*을 표현하는 모든 낱말들은 서로 한계를 지어 준다: *denken, meinen glauben*과 같은 동의어들은 그들의 대립 *Opposition*을 통해서 만이 그들의 특별한 가치 *Wert*를 가진다. 만일 *meinen*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의 전체 내용 *Inhalt*은 그의 경쟁자들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다.²⁰⁾ 라고 말하고 있다. de Saussure는 물건에 있어서 물질적인 만물과 개념에 있어서 정신적인 만물의 분할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어디서나 같은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구별적인 대상들에 만물의 분할은 수많은 상이한 면에서 생겨날 수 있으며 분할은 또한 수 많은 여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 *Mauret*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약대 사육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하라의 유목민들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Kamel, Kamelstute, Kameljunges*와 같은 세계의 궁색한 낱말이 전부인데 반하여 단어집이 무려 60개의 낱말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금 두 개의 이가 난 작은 약대는 거기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언어가 *Palme*라는 낱말만을 가지고 있는데 *Bantu*언어는 그 물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혼잡하게 하는 약 60개의 상이한 낱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은 그들의 털에 따라 표시하기 위해서 유럽의 일상어는 최고로 10개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알젠틴의 *ganche*인들은 200개의 상이한 말의 이름을 통용하고 있다. 각각의 문명은 세계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눈다. 독일어 영역에서 언제나 말 사육이 있기 때문에 *Pferd*(말), *Stute*(암말), *Füllen*(망아지), *Hengst*(숫말), *Wallach*(거세한 말) 혹은 *Schimmel*(백마) 등을 사용하여 언어외적 *außersprachlich* 물건을 구별한다. 그러나 제비를 사육하지 않기 때

20) F. de Saussure,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Berlin 1967. S. 138f.

문에 Schwalbe (제비)라는 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낱말의 의의에 대한 현대 언어학의 토론이 de Saussure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de Saussure의 언어 분석은 번역가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 처럼 보인다. 각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언어의적 사실, 즉 대상을 다르게 명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표시하는 낱말의 수도 상이하다는 사실이 번역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de Saussure의 예 외에도 A 언어 공동체에서의 한개의 낱말이 B 언어 공동체에서 문화적으로 여러개의 낱말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치즈를 생산하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못한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는 이 낱말을 외래어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²¹⁾ 이러한 경로를 통한 외래어의 소개를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으로서 표현을 위한 풍부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de Saussure는 말하고 있다. de Saussure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번역할 수 없는 낱말이나 목표어에 존재하지 않는 낱말——특히 과학기술 용어에 있어서 외래어의 인수 *Aufnahme*가 국어 정화면에서 언어적 부패 현상이라고 보아서는 안되겠다. 그러나 상응하는 낱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은 언어의 병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낱말 대 낱말 번역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그룹들이 세상의 물건들을 같은 방법으로 재고 목록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록 작성의 개별 명명법이 결코 전체적으로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 Saussure는 번역가들에게 회의의 동기를 주지 않았다. 세계의 언어들이 상이하게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언어들은 언제나 동일한 우주를 기술하고 표시한다. 그러므로 번역 행위는 사람들이 오랜동안 믿어왔던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Hjelmslev도 de Saussure에게서 출발하여 순수한 언어학적으로 방향이 제시된 의미 개념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다. 그는 결정적으로 “한 기호는 우선 무엇 보다도 무엇을 위한 하나의 기호이다”라는 생각을 반대했다. 이 생각은 “논리적으로 지탱할 수 없다 [……] 기호는 손가락으로 어떤 언어의적 내용을 지적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Hjelmslev에 따르면 언어적 기호는 “어떤 표현과 내용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난 하나의 실체”이다.²²⁾ Hjelmslev는 거기서 부터 언어들은 명백한 상이한 방법으로 세계를 물건과 개념으로 나누는 사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설명을 유도해 내고 있다. 물건과 개념이 언어적으로 명명되지 않는 한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보편적 물건이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21) R. Jakobson, “Linguistische Aspekte der Übersetzung”, in: *Übersetzungswissenschaft*(hrsg. von w. Wilss) S. 189

22) Hjelmslev, *Prolegomena to the Theory of Language*, Baltimore 1953. Originalausgabe: *Omkring Sprogteoriens Grundloeggelse*, Kopenhagen 1943. Deutsche Ausgabe: *Prolegomena zu einer Sprachtheorie*, Übersetzt von Rudi Keller, Ursula Scharf und Georg Stötzel, *Linguistische Reihe* Band 9, München 1974, S. 46, 47

의 가장 간단하고 전형적인 보기의 하나는 색깔의 전 언어적 *Vorsprachlich* 개념, 그러니까 녹색, 청색, 회색 혹은 갈색의 보편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생겨난다. 웰스어와 영어에 있어서 이러한 색깔의 표시를 취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분해를 가진다고 Hjelmslev 는 말하고 있다.

푸 른	vert grün	gwyrrd	tree	Baum	arbre	나 무
	bleu blau			glas	Holz	
회 색	gris grau	llwyd	kkov	wald	forêt	숲
	brun braun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웰즈어 낱말 'glas' 는 다의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glas' 는 구체적인 사용에 따라서 'grün', 'blau' 혹은 'grau' 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연관해서 "X는 이 콘텍스트에서는 Y를 의미한다"와 같은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웰즈어의 화자에게는 웰즈어에서 'glas' 혹은 'llwyd' 로서 나타날 수 있는 'glau' 의 경우에 있어서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다의성의 주장이 옳지않게 보일 것이다. (J. Albrecht, *Übersetzung und Sprachwissenschaft*, S. 8을 비교하라). 좀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웰즈어가 'gwyrrd' 와 'glas' 로서 표시하고 보는 물건을 영어는 'green' 으로서 표시하고, 그것에 반대하여 웰즈어가 'glas' 로서 보는 물건을 영어에서는 'green', 'blue' 혹은 'gray' 로서 보여지고 표시되어 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반면에 다시 영국인에게 'gray' 혹은 'braun' 의 대상의 확실한 것이 웰즈인의 표상 가운데서는 'llwyd' 라는 표시하에서 일치된다. 여러가지 언어는 세상의 물리적, 개념적 실체가 완전히 자의적인 방법으로 분석된다. (Hjelmslev, *Prolegomena*, S. 33, G. Mounin, *Die Übersetzung*, S. 68을 비교하라).

위의 분석이 한국어에도 적용되어 설명될 수 있겠다. 이 도해에 따라서 Hjelmslev 는 유럽 언어 가운데서 목재 Holz의 표시와 Plural(복수), 또한 Dual(쌍수), Trial (삼수), Quatrial (4수), Paucal (5수) 등의 범주를 가지는 문법적인 수의 개념을 연구했다. Hjelmslev 는 만물을 *puport* 라는 말로 표시하고, 이 낱말로 그는 화자의 머리속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한 것이다. *Lexikon* (어떤 언어의 의미를 지니는 단위의 총체)의 영역에서 눈에 띄는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다른 내용적 모든 범위에도 일치한다. 명사 (대명사는 아님)의 영역에서 문법적인 성

의 관점에서 볼 때 영어에서는 한개의 성, 불어에서는 두개의 성, 독일어에서는 세개의 성이 구별된다. 이 현상이 위에 있는 보기와 연관해서 Hjelmslev에 의해서 소개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현대 유럽 언어에 있어서는 성 Genus의 의미론적인 범주로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필연적이고 인식론적인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

- 1) 인식이 우주만물[……] 자체를 쉽지 않게 하고 있다.
- 2)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에서만 학문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²³⁾

미국의 위대한 언어학자이며, 예일 언어학과의 설립자인 L. Bloomfield는 기술 언어학에서 의미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Bloomfield는 언어학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미국 구조주의의 한 부분을 이루지만 나중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미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Bloomfield 전통속에서의 언어학은 바로 “의미적대적” bedeutungsfeindlich이라는 말로 특징지어져 있다.²⁴⁾ 그는 언어를 행동주의적 behavioristisch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화자와 청자의 행동의 순수한 기술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방법론에 있어서 모든 심리적인 원천에 대한 참조를 배제하기를 원했다. 즉 인식 Bewußtsein, 개념 Begriff, 정신적인 직관 geistige Anschauung, 이상 Ideen 등 심리적 요소들은 언어학적 방법을 통해서 파악될 수 없는 언어외적인 실제 Realität 들인 것이다. “과학적인 연구 분야에서 언어학자만이 유일하게 홀로 언어적인 기호와 관계한다. [……] 생리학과 심리학[……]의 문제에 대해서 언어학자는 능력이 없다. 언어적 기호를 연구하는 언어학자의 발견들은 심리학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발견들은 어떤 심리학적 편견을 통해서 곡해되어진다²⁵⁾”고 Bloomfield는 언급하고 있다.

그의 행동주의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떤(관찰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극 S¹를 느낀 그들 중의 하나가 특별한 음향적인 파장 R¹를 보내면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파트너에 의해서 자극 S²로서 느껴진 음향적 파장의 수취가 새로운 음향적 파장의 발산으로 혹은 어떤 손짓이나 행동을 통한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R²를 야기한다. 두 참가자의 첫번째인 화자가 S를 의도적으로 발산하고 두번째인 청자에 있어서 반응 R를 야기한다면, 우리는 언어와 관계하게 된다.

Bloomfield의 행동주의는 정확한 분석방법이 특징인데, 이 분석 방법을 가지고 진술의 주

23) Hjelmslev, Prolegomena……, S. 48; S. 31, 32.

24) 예를들어, H. Geckeler, Strukturelle Semantik und Wortfeldtheorie, München 1971. S. 27. M. Ivić는 Bloomfield에 관한 서술에서 “그가 의미면을 등한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M. Ivić, Sprachwissenschaft, München 1971. S. 184) 그러나 Bloomfield는 행동주의 Behaviorismus의 기본문제들을 받아드려 언어학에 적용하면서 언어분석의 폭을 제한하여 언어의 의미면을 중요시 하면서도 일단 뒤로 물러 놓은 것은 사실이다.

25) L. Bloomfield, Language, S. 32.

어진 모습 *Koropus* 이 전진적으로 분절되어지고 발견된 단위들이 확인되어지고 그 단위들의 분포에 따라 분류되어지는데, 동시에 여기서는 형태 Form 의 의미는 관계하지 않는다. Bloomfield 는 “행동주의”의 과학 이론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취하고 화자의 “내성” *Introspektion* 에 대한 관계는 언어학에서 엄격히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은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Bloomfield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언어에 있어서 모든 형태에 대한 과학적인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화자의 세계에서 모든 사물에 대한 어떤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에 비교해서, 인간 지식의 실제적인 범위는 대단히 작다.²⁶⁾ 이렇게 Bloomfield 는 아몽든 소금의 의미를 진술하기를 감히 시도하고 있다 “……영어 낱말 salt 의 평범한 의미는 ‘염화나트륨(NaCl)’이다.²⁷⁾ 그러나 사랑과 미움에 대한 상응하는 의미를 주는 과제 앞에서는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의미의 진술은……언어 연구의 약점이다. 그래서 의미의 진술은 인간의 지식이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 훨씬 더 진보할 때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²⁸⁾

행동주의자 Bloomfield 에게 있어서 언어는 자극(S)과 반응(R) 연관에서 그가 설명하는 인간 행동의 특수 형태이다. 특히 말하기에 있어서는 단순한 연속 $S \rightarrow R$ 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언어적인 자극이 화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화자에게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대치 반응(r)를 불러 일으킨다. 청자는 자기편에서 그가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바꾸는 어떤 언어적 대치 자극(S)를 받아 들인다. 즉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S \rightarrow r \cdots \cdots s \rightarrow R$$

동시에 Bloomfield 에 있어서는 음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형태와 결부되어 있는 $r \cdots \cdots s$ 의 연속만이 언어학적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r 과 s 사이에서 중재되어지는 의미를 그는 외부에서, 즉 비언어적 영역 $S \rightarrow () \rightarrow R$ 의 테두리에서 찾아진다고 믿었다. 여기서 Bloomfield 가 끌어 내고 있는 두개의 근본적인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언어학적 형식의 의미는 “화자가 그 형식을 말하는 상황과 청자에게서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대답이다.”²⁹⁾ 2) 어떤 화자를 위한 어떤 형식의 의미는 이 화자가 이 형식을 들은 상황에서 나오는 결과이다.³⁰⁾

Bloomfield 의 의미 문제를 언어학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후로, Helbig 는 미국 언어학의 “의미 문제” *Meaning Problem*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³¹⁾ 즉 그는 미국 구조주의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1) Bloomfield 의 기술적 언어학, 2) Harris 의 분포주의 언어

26) L. Bloomfield, *Language*, S. 139.

27) Ebenda, S. 139.

28) Ebenda, S. 26.

29) Ebenda, S. 139 내지 S. 151f.

30) Ebenda, S. 139

31) G. Helbig,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S. 78ff.

학, 3) Chomsky의 변형적 언어학인데, “전체 의미가 명칭 *Bezeichnung*, 더 적절한 말로 표시하면 표현 *Bezeichnete* 자체와 동일시 된다.”³²⁾는 것이 세 단계 전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구조주의의 세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전통적으로 되어진 “의미의 적대성적”인 경향이 명백해졌다. 왜냐하면 Chomsky의 문법에 있어서는 “어떤 언어의 문법적인 문장 모두 그리고 이것만이” 생성되고³³⁾ 그러므로 생성문법은 “언어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을 엄격하게 명시화한”³⁴⁾ 것이며, 언어학에서 의미의 제외는 더 이상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진술의 완전한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Bloomfield의 이론은 진술을 번역하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Hjelmsley와 마찬가지로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이론의 엄중성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번역 가능성에 대한 Bloomfield의 요약한 Mounin의 설명을 소개하기로 한다.³⁵⁾ 1) 우선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특징들이 하나는 있다. 만일 내가 “하나의 사과”를 말한다면, 청자는 이해하기 위해서 크기, 색깔, 무게, 길이, 시간등에 관해서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언어는 단지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회화할 수 있고 또 사회화된 부분만을 진술한다. 2) 더나가서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체험의 넓은 범위에서 이 의미가 학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무엇을 의미한다면, 어떤 언어적 형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salt*의 공식의 의미는 “나트륨염 클로리드”(염화나트륨)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광물의 이름을 화학과 광물학의 개념속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식물학과 동물학의 기술용어 *Termini technici*의 도움으로 식물과 동물의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위한 상황들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정의되어질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또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환자와 청자는 그들이 전해주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경우 지시적인 정의(*Zeigen*)를 통해서나 혹은 언어적 정의(글자로 옮기기) 혹은 심지어 두개의 언어로 된 정의(번역)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Bloomfield는 그의 언어취급의 방법론에 있어서 의미에 대한 제한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에 접근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번역할 수 있다는 오랜 확실성에 제한을 가하기는 했지만 번역가들의 가능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32) E. Coseriu, *Leistung und Grenzen der transformationellen Grammatik*, S. 37.

33) G. Helbig, *Geschichte...*, S. 265

34) Ebenda, S. 280

35) G. Mounin, *Die Übersetzung*, S.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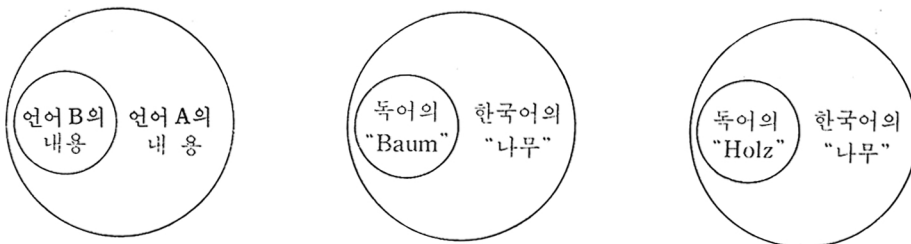
V. 번역이론의 여러가지 관점

위에서 번역과 의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 이지만 언급해 보았다. 실제로 있어서 이제까지의 모든 번역이론은 이 의미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었고 토론되었다. 본장에서는 몇몇 현대이론가의 생각을 고찰해 보면서 번역의 최근 쟁점을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E. Coseriu 가 번역의 의미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문 “번역이론에 있어서 옳고 그른 문제제기” *Falsche und richtige Fragesellung in der Übersetzungstheorie*³⁶⁾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는 지금까지 번역이론에서 잘못 생각되어온 4가지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가지 문제만 토론해 보려고 한다.

그가 첫번째로 제기한 잘못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번역문제는 <langue> 특수적으로 보아 야지 <parole> 특수적으로는 아니다.” 이 문제 제기는 여러 개별언어 <langues>에 해당하는 문제성이다. 특히 이 문제는 출발어와 목표어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개별어적인 의미들과 그 의미들의 대비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여지고 있다.

개별어의 내용이 단순히 동일한 것이고 번역은 표현측면에서의 하나의 대치적인 번역에 필적한다는 오래되고 인기있는(더우기 훌륭한 번역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관여되지 않는) 견해에 대해서 E. Coseriu 는 자신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Schleiermacher 이래로 사람들은 적어도 반사적으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즉, 훌륭한 번역가와 둘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 화자들은 이미 직관적으로 전문용어의 어휘는 간파하고 서로 상이한 두 언어들의 내용은 1:1의 관계 혹은 영 to know—불 savoir;connaître, 이태리어 scala—독 Trepp/Leiter, 불 flew—독 Blüte 등과 같은 1:2(내지 1:3, 1:4등)의 “합리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 비 합리적인 관계에 있어 그 결과 A라는 언어의 어떤 내용이 B라는 언어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이 내용들은 다시 B라는 언어의 다른 내용에 일치하여 두 언어의 많은 내용들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36) L. Grähs/G. Korlèn/B. Malmberg (Hrsg.),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Nobel Symposium 39, Stockholm, September 6—10, 1976, Bern/Frankfurt a. M./Las Vegas: Lang 1978, S. 17—32; 혹은 W. Wills (Hrsg.), *Übersetzungswissenschaft*, S. 27—37

위의 그림이 보여 주듯이, 한국어(A) 나무를 독일어(B) **Baum** 과 비교하면, 이들의 내용은 서로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한국어 낱말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와 ‘목재로서 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독일어와 영어의 경우는 양자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즉 Baum: Holz, tree: wood 사이를 구별한다. 이러한 개별어적 의미 형성의 상이성이 번역이론의 중요문제 내지는 번역행위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고찰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어 **porter**는 이태리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 E. Coseriu는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어 **porter**는 부차적으로 이동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이태리어 **portare**는 불어에서 결여되어 있는 진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1인칭 장소의 방향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스페인어 **venir**는 1, 2인칭의 장소를 향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이태리어 **venire**로 번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번역의 현대 이론(그밖의 옛 이론과 마찬가지로)은 “낱말들”이 번역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어떤 관점에서 “낱말들”이 번역되어진다. 또 다른 관점에서 “낱말들”이 번역되지 않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구조 Konstruktionen와 문장들 Sätze도 번역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한 논거를 위해서 E. Coseriu는 토스칸어 Buona sera를 들고 있는데 이 두낱말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Guten Abend를 번역할 수 없음을 들고 있다. 토스칸인은 벌써 13시 이후에 Buona sera를 말하는데 독일인은 해가진후 Guten Abend를 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어 Guten Morgen은 불어, 이태리어로 결코 번역할 수 없다. 일치하는 의미들 불어 Bon matin, 이태리어 Buon mattino, 스페인어 Buena mañana가 말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Bonjour, Buon giorno, Buen día(Buenos días)로 되는데, 이들의 의미는 독일어의 Guten Tag와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Guten Morgen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명칭 *Bezeichnung*이 아니라 텍스트의 특수한 내용인 의미 *Sinn*를 표현해야 할 것이다. 명칭에 주의하여 “좋은 아침”으로 옮긴다면, 이 말은 한국인이 아침에 인사말로 사용하지 않는 의미없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Guten Morgen 같은 아주 간단한 예에서 출발하여 번역의 과제가 어디 있는지 E. Coseriu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낱말들”이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고, 오히려 개별어 내용 자체가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시 되어야 한다. E. Coseriu에 의하면, 번역은 개별어(langue)의 측면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텍스트의 측면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Guten Tag도 하나의 “텍스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만이 번역되어지고 이 텍스트는 언어적 수단만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상이한 척도에서 또한 언어외적 수단을 이용해서 생성된다고 E. Coseriu는 설명하고 있다.

번역에 있어서는 “어떤 동일한 텍스트 내용”을 상이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문제시 한다. 그런데 개별어의 내용들이 하나 하나 “번역되어진” 내용은 동일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또한 개별적이 아니고 초개별적일 수 있다. 이 “초개별 언어적”인 내용이 바로 개별적 의미일 수 없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E. Coseriu 는 언어적 내용의 세가지 중요한 구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명칭 *Bezeichnung*, 의미 *Bedeutung*, 의의 *Sinn* 이다.

E. Coseriu 는 의미를 “때에 따라 개별어에—더우기 개별어 자체에서만 주어진 내용”으로서 이와 반대로 명칭은 언어외적인 “사물” *Sache*, 즉 언어외적인 “사태” *Sachverhalt*, 혹은 “상황” *Tatbestand* 내지 언어외적으로 생각되어진 자체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더우기 명칭은 언어적 의미를 경유해서만 도달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어 *bringen*, 불어 *apporter*, 스페인어 *traer*, 이태리어 *portare* 는 상이한 의미를 가지며, 그때 그때의 언어에서 관계하는 의미론적 대립을 통해서만이 경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상황에서 동일한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태리어 *scala*, 독어 *Trappe* 가 바로 그것이다. *scala* 가 *Trappe*(고정된 계단, 사다리)와 대립될 때 *scala* 의 ‘움직이는 사다리’의 의미는 배제된다. “사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말한다면, 강, 호수 혹은 바다에서 목욕할 때 물이 비교적 얇다는 사실을 독일어로는 *Hier kann man stehen* ‘여기에 사람이 설 수 있다’, 스페인어 *Aqui se hace pie*(직역: “Hier tun man Fuß” ‘여기서 사람들이 발을 놓는다’), 이태리어 *Qui si tocca*(직역: “Hier berührt man” ‘여기서 사람들은 닿는다.’)로서 표시한다. 즉 완전히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E. Coseriu 는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다. 두 대상 A와 B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어떤 언어에서는 “A ist größer als B” ‘A는 크기에 있어서 B를 능가한다.(내지 “A ist groß, es übertrifft B” ‘A는 크다. 그것은 B를 능가한다’), 또 다른 언어에서는 단순히 “A ist groß, B ist klein” ‘A는 크고 B는 작다’로 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에서도 다르게 표시한다. E. Coseriu 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불어, 독어, 라틴어에서 들고 있다.

불어 *La porte est ouvert—La porte n'est pas fermée,*

독어 *Er schwieg—Er sagte nichts,*

라틴어 *Caesar pompeium vicit—Pompeius a Cassare victus est*

다음으로 E. Coseriu 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의는 텍스트나 텍스트 단위의 특수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단순히 의미와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다. 이에 대해서 E. Coseriu 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예를 들고 있다. 즉 “Sokrates ist sterblich”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의 의의는 어떤 삼단논법에서 “전체 부류에 유효한 것은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 부류의 각각의 구성원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유효하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나 “Sokrates”는 여기서 하나의 예일 뿐이며, 그 예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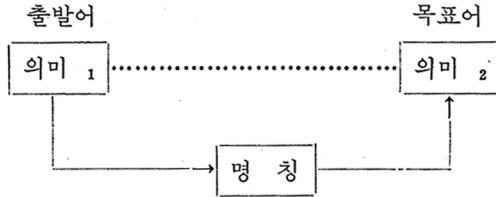
있다. 실제생활의 어떤 상황에서는 동일한 이 표현은 예를 들어 “Mahnung an Xanthippe” 는 크산티페에 대한 주의 환기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시에서는 인간의 죽음과 무력에 대한 시적 상징이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적 관점에서 의의는 텍스트에만 있게 된다. 그래서 의의는 근본적으로 광범하게 언어적(표현방식)이 아닌 다른 표현 방식에 전 의될 수 있다(그래서 예를 들어, 소설과 영화는 동일한 총체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대답, 요구, 확인, 이의, 거절, 답례, 부탁, 명령, 실례, 복중, 인사말, 인사들은 의의의 범주이며 이것들을 통해서 텍스트가 생긴다.

E. Coseriu 가 하고 있는 언어내용의 세가지 구별에 따라서 번역의 과제는 이제 언어적 관점에서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의의를 다른 언어의 수단을 통해서(즉 본래의 의미를 통해서) 묘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할 때 문제는 상이한 언어적 수단을 가지는 동일한 명칭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이 언어의 이러저러한 의미를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 어떤 다른 언어의 동일한 사태 혹은 사실을 어떻게 명명하는가?”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우선 (원 텍스트 Originaltext 에서 명칭을 이해할 때) 의미론적으로 다음에 (어떤 다른 언어에서 상응을 확인할 때) 명칭론적 *onomasiologisch* 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은 함축적으로 의미론과 명칭론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론과 명칭론이지 여러 언어의 것은 아니다.

E. Coseriu 는 이러한 사실에서 다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번역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1) 번역(더우기 “올바른” 번역)은 그것이 소위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은——우선 위에서의 세가지 구분을 두고 말한다면——의미에 관계된다. 그와 반대로 번역의 존재에 대한 확인은 적어도 함축적으로 명칭에 관계된다. 그러므로 번역의 불가능성은 이런 관점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번역의 불가능성은 의미와 관련해서 옹호한다는 것은 의의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의미는 번역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가서 의미는 번역되어서는 안된다. 번역의 과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번역될 수 없다. 의미는 개별어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미는 “기술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분석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개별어 의미의 분석적 설명은 사전 혹은 대비적 어휘론 *Kontrastive Lexikologie* 에서 적합하다. 그러나 번역은 사전이 아니며, 어휘론적 연구가 아니며, 어떤 다른 언어와 어떤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 *Sprechen* 이다. 이때 출발어의 의미들은 첫번째 의미론적인 단계에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텍스트가 표시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곧 출발어의 의미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두번째 명칭론적인 단계에서는——본래의 번역 과정에서는——동일한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목표어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E. Coseriu 는 다시 간단한 그림으로 번역과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달된 텍스트의 내용은 전적으로 명칭과 의미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의미₁에서 의미₂로는 직선이 그어지지 않는다. 즉 의미론적 단계에서 번역가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dekodiert” 해독하는) 출발어의 화자 처럼 행동하며, 명칭론적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enkodiert” 기호화하는) 목표어의 화자 처럼 행동한다. 이때 유일한 차이는 번역가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까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별어의 의미가 텍스트에서는 그 자체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변이체” *Varianten*로서(개별어적 의미들은 다만 많은 여러 가지 말하기 행동에서나 혹은 언어 자체의 수준에서 변환 *Kommutation*에 의해 의미의 단위로서 연구되어질 수 있다.)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개별어의 의미는 텍스트의 전달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의미에 의해 사태나 상황이 표시된다. 즉 사람들은 의미를 수단으로 말하며,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의미가 바로 지시된 것이라는 것을 제외 한다면) 전적으로 전달된 텍스트의 내용은 전적으로 명칭과 의미에서 생겨난다.

2) 따라서 번역에서는 첫째로 명칭에서의 등가가 문제시 된다. 번역에 관여된 출발어의 의미와 목표어의 의미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위 그림의 점선)일 뿐이다. 즉 이것은 대비언어학에서 처럼, 의미 자체의 측면에서 생산되지 않고, 이 언어들의 유사한 혹은 상이한 의미들이 명칭에서 서로 “일치하는”, 다시 말해서 명칭에서(규칙적으로, 혹은 대부분 혹은 단지 어떤 경우에서만) 일치할 수 있는 한에서만 성립한다.

3) 그 밖에 특정한 상황과 문맥에서 등가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상응을 확인할 때는 의미와 의미의 사용 사이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이한 언어에서 독립적으로 유추적인 의미들이 상당한 모양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 **keine Ursache**(Danke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불어 ***Aucune cause**, 이탈리아어 ***Nessuna causa**와 상응하지 않고, 오히려 **pas de quoi**와 **Non C'è di che**(혹은 **Ma Le pare?**)와 상응한다. 한국어의 상응도 독일어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천만예외이다. **Kein Eingang**(어떤 관판에서)은 ***Aucune entrée**, ***Nessuna entrata**가 아니고 **Défense d'entrer, proibito(vietato) entrare** 등이다. 이에 대한 한국어의 상응은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출입금지이다. 독일어 **Schade!**에 대해서 불어는 유추적인 의미(**Domage!**)를 가지며, 그에 대해 영어, 스페인어에서는

(대략) “Mitllleid(동정) (What a pity !, i Qué lástima i), 포르투갈어에서는 “Schmerz”(고통) (Que penda!)의 의미를 가진다. 이태리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Sünde(죄) (che peccata ! Ce păcat !)”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어의 경우는 오히려 영어, 스페인어에 일치하는 유감스럽다이다. 근본적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응에서도 번역가는 상이한 언어에서 이러 저러한 상이의 우선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Natürlich**에 대해서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에서는 사용 가능한 **Naturalmente**가 아니라 **Si capisce che** 내지는 **claro esta que**(혹은 **Desde luego**)가 발견되고, 독일어 **Es ist rutschig**는 이태리어에서는 **È scivoloso**가 아니고 **Si scivola**가 얻어진다.

4) 한 텍스트에서 표시된 상황이 자명하게 목표어에서도 이미 명명된 상황일 필요는 없다. 동일한 것은 상응한 상황에 대해서 유효한데 그것은 번역에서는 물론 상응하는 언어 공동체에서 통례적인 상황만을 문제시 하기 때문이다. (**Kein Eingang**을 갖는 간판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두 언어 공동체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두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유추적인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5) 낱말들도 그것들이 명칭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번역되어 진다. 낱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번역될 수 없거나 번역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동일한 명칭이 중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6) 개별어의 상이성, 즉 개별어를 통한 현실의 상이한 현상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의 전제, 즉 번역의 현존 조건이다. 바로 그 때문에 번역이 존재하며 표현의 측면에서 단순한 대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별어의 의미 자체의 상이성은 번역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번역이란 그 개념이 보여 주듯이 원칙적으로 상이한 의미를 수단으로 하는 동일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별어 의미의 상이성 내에는 번역 실체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명칭에 있어서 등가는 대개 경우에 따라 연구되어야 하며, 번역가가 자유로이 사용하는 보조수단(특히 2개국어 사전)이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경험적인 문제가 중요시 된다. 그와 반대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언어가 어떤 일정한 명칭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한 언어가 어떤 일정한 실재(언어외적 사실)를 형성하지 않을 때만이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번역은 실제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Schnee ‘눈’을 알지 못하는 많은 언어공동체의 언어에서 자주 인용되는 “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우는 번역의 실체에 어떤 특수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명칭에서(목표어에서 아직 명명되지 않은 “현실”)번역가는 일반적으로 화자 처럼 처신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언어의 화자가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바로 동일한 조작, 즉 출발어로 부터 표현의 차용, 의미적합(“차용번역”), 새로운 표현

과 의미를 토착어의 수단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미 설명한 바 텍스트는, 그것들의 언어적 내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고, 원리, 즉 일반적인 “사물의 지식”, “사물” 내지는 여러가지 언어외적인 맥락에 관계하는 표상 *Vorstellung* 과 생각 *Meinung* 에 대한 함축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능을 발휘한다. (Coseriu 의 1955—1956) 참고 특히 p.49 이하). 그외에도 텍스트는 상응하는 언어 공동체에 알려진 다른 텍스트에 관계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언어 자체는 기호체계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명칭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die Sonne*(태양), *der Mond*(달)는 더 이상 정의 없이 명백히 개별적인 명칭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맥락”에서 단 하나의 해와 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텍스트의 의의를 위해 기여한다. 만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읽는다면, 즉 “다섯 번째 달이 벌써 하늘에 떠 올랐다. Bang Tronk 는 갑자기 그의 22개의 눈을 뜨고, 그의 6개의 팔을 하나 하나 폈다.” 사람들은 즉시 이것이 어떤 “환상작품”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사물의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상응하는 행동이 땅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Bang Tronk 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텍스트의 창작에 함축적으로 관여된 수단이 일반적으로(모든 인간을 위해서) 유일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수단들은 번역에 있어서는 묵시적으로 전제된다. 그러나 이 수단이 한정된 타당성만을 갖거나 원래의 텍스트의 언어가 그 안에서 순수 도구적인 명칭 체계로서만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그런데 이 두 경우는 대단히 흔하다), 번역할 때 명칭과 의의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이런 일은 특히 다음의 두 경우에 생겨난다:

a) 지시된 사물 자체가 상응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경우와

b) 원래의 텍스트의 개별어적인 사실이 표시적 기능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직접 상징화 시키는 기능을 가질 경우이다. 예를 들어, Schwarz ‘검은색’는 많은 언어공동체에서 죽음, 슬픔, 슬픈감정을 연상시키며, 그와 반대로 Weiß ‘흰색’는 기쁜 감정, 조용하고 편안한 정신 상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역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흰색이 슬픔의 색채 가치를 지닌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검다. 검은 색의 나무들, 검은 새들, 검은 꽃하늘의 검은 구름”과 같은 텍스트는 그때문에 상이한 언어공동체에서 상이한 의의 뿐만 아니라 정확히 대립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만일 의의를 고수하려고 한다면, Schwarz 를 Weiß 로, 그리고 역으로 번역해야할 것이다. 번역가가 의의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는 명칭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그와 반대로 명칭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번역 자체의 밖에서 (예를 들어 각주 혹은 설명적인 주석에서) 동일한 명칭이 원래의 텍스트에 일치하는 언어공동체에서는 다른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진술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사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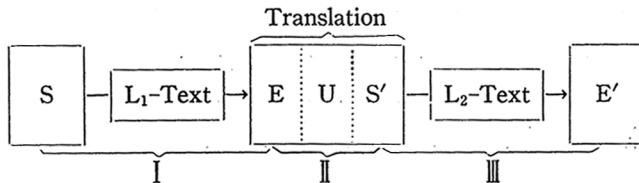
나 언어적 사실들이 한 언어공동체에서만 상징적인 가치를 가진다면 다른 언어에서는 아무런 상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염소는 도처에서 여성의 어리석음에 대한 상징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E. Coseriu 가 제기한 4가지 문제 가운데서 개별어에 관한 문제만을 소개했다. 이 토론에서 그의 결론적인 견해는 번역문제는 <langue> 특수적이 아니고 <parole> 특수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집약될 수 있겠다.

O. Kade 는 “번역의 의사소통학적 문제”³⁷⁾ *Kommunikationswissenschaftliche Probleme der Translation* 라는 그의 논문에서 의사소통학적인 관점에서 번역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논문의 핵심부분만 언급해 보려고 한다.

O. Kade 에 의하면 번역은 의사소통학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수단으로 한 인간의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 수단의 특성은 어떤 의사소통의 행위 안에서 동시에 두 언어를 사용할 때 수용적이고 재생산적인 말하기활동 *Redetätigkeit* 의 평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시언어학적 *mikrolinguistisch* 인 뜻에서 번역은 출발어에서 목표어로라고 하는 부호 변화에 국한되는 반면에, 의사소통학적 입장에서 부터 개념을 더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O. Kade 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출발어-텍스트(=원문; 어떤 주어진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인수 *Aufnahme* 하므로 시작되고 목표어-텍스트(=번역물; 어떤 주어진 언어로 된 텍스트)의 실현 *Realisierung* 으로 끝나는 두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적 공정성(이로서 동시에 언어적, 언어외적인 요소의 복잡한 사회적 제약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번역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출발어에서 목표어에로의 부호의 변화인데, 이것은 의사소통 활동에서 그의 기능을 근거로 하여 특정한 제약의 기초가 되는데, 이 과정은 좁은 의미의 번역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두개의 언어로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에서 번역의 의미를 찾고 있는 O. Kade 의 도해를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번역문제를 언급해 보려고 한다.



두 언어의 의사소통에서 S(Sender, 보내는 사람, 발신자)와 E(Empfänger, 받는 사람, 수신자)가 공통의 기호 Kode를 사용하지않는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의사소통은 E에 대한 S의

37) O. Kade, *Kommunikationswissenschaftliche Probleme der Translation*,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 Wilss, Darmstadt 1981. S. 199-218

정보를 L_1 -텍스트(언어 1 로 작성된 텍스트)로 변화시킴으로서 가능케 되는데, L_1 -텍스트가 S의 정보를 E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바로 여기에 번역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한다:

- a) 이해의 목적을 위해서 L_1 -텍스트의 탈기호화 *Dekodierung*,
- b) 이해, 다시 말해서 더 좁은 의미(L_1 -텍스트를 위한 L_2 -텍스트의 설정)에서의 부호 교체
- c) L_2 -텍스트의 실현화

번역가(T)는 이러한 성능을 이끌어 낸다. T는 두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S와 E사이의 중간요소로서 나타난다. T는 S에 대해 E로서 그리고 S의 정보가 최종적으로 도달되어야 하는 수신자에 대해서는 비 본래적인 발신자 S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S의 정보의 본래적인 수신자는 2개 국어로 된 의사소통에서는 제 2의 수신자인 E'가 된다. S'로서 기능을 위한 전제는 기호를 바꾸는 자 *Umkodierer* U로서 T의 성능이다. T에 의한 U의 기능 실행은 E로서 그의 성능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2개 국어로 된 의사소통은 세단계에서 생겨나는데, 이 단계에서 때때로 다음의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요구한다. 이 세단계는 다음과 같다.

- I. S와 T(E로서 그의 특징안에서)사이의 의사소통,
- II. T의 성능(U로서 그의 특징안에서)으로서 L_1 에서 L_2 로의 부호교체,
- III. T(S'로서 그의 특징안에서)와 E'사이의 의사소통

번역은 III단계의 한 부분(L_1 에서 T/E를 통한 S의 정보를 받아드림과 탈기호화), I단계의 전체 부분(T/U를 통한 부호교체, II단계의 일부분(L_2 에서 T/S'를 통한 E'를 위한 정보의 실현).

번역에는 T만이 직접 참가했다. 그러나 T는 E로서 그의 기능에서 S를 지시하고 그의 영향하에서 S'로서 E'에 의존한다. S-E와 S'-E' 결합의 영역에서 번역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의사소통 당사자의 개인적인 잘못된 성능이 번역에서 방해로 야기할 때, 번역의 실제에서 명백하게 감지될 수 있다.

S의 의사소통적인 잘못된 성능이 T에 있어 잘못된 출발평가에 이르게 하고 번역을 본질적으로 해치게 된다. E'의 의사소통적 잘못된 성능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번역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O. Kade의 의사소통학적 견지에서 번역과정을 살펴 보았는데 번역의 근본 문제는 결국 L_1 에서 L_2 로서 기호 교체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번역가의 부족한 성능), S의 잘못된 L_1 텍스트 구성이나 E'이나 입장에서 L_2 -텍스트의 물이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때도 있다.

Ⅶ. 번역의 목표어로서 한국어의 의미문제

이미 앞장의 E. Coseriu의 번역이론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몇개의 우리말 낱말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는데 본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많은 낱말들을 예로 끌어들이며 독일어를 출발어로 하여 목표어인 한국어로 옮길 때 두 언어 사이의 의미의 일치 *Entsprechung* 문제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소개를 위해서 몇가지 일치의 유형 *Entsprechungstypen*을 열거하고 이 유형에 따라 우리말의 온도 형용사 *Temperaturadjektive*의 낱말들을 독일어의 그것과 비교하여 번역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의 연구는 통시적 *synchronisch*인 관점에서 두언어의 어휘적 의미 *lexikalische Bedeutungen*를 기술하고 있음을 언급해둔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의미론적, 문체론적 단위들과 두 언어의 특징 사이에 1:1의 관계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 Coseriu가 언급했듯이,³⁸⁾ 개별어의 낱말의 내용이 1:1의 합리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말의 낱말 **꽃**은 독일어에서는 두개의 낱말 **Blume**와 **Blüte**로 표시할 수 있다. **Blume**는 열매맺는 것과는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꽃을 말할 때 쓰고, **Blüte**는 열매를 맺는 꽃을 의미한다. 더 우기 수목이나 관목의 경우에는 주로 **Blüte**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런 경우 텍스트의 수준에서 이 낱말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된다. **장미, 꽃의 여왕이여!**에서 **꽃**은 독일어 **Blume**이고 **사과 나무의 꽃**에서 **꽃**은 **Blüte**에 일치한다. 이러한 텍스트 수준에서 의미적 구별도 결국은 어휘적 영역에서 낱말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두 언어 사이에 있어서 낱말의 의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번역행위에 있어서 1차적인 단계인 것으로 보여진다.³⁹⁾

W. Koller는 그의 저서 “번역학 입문”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⁴⁰⁾에서 번역 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일치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에 적용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1:1의 일치

이것은 출발어 1개의 표현이 목표어 1개의 표현과 일치하는 경우인데 주로 전문용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38) E. Coseriu, Falsche und richtige Frags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 Übersetzungswissenschaft/hrsg. von W. Wilss, Darmstadt 1981 S. 29

39) E. Coseriu의 말에 따르면 번역의 1차적 단계는 낱말을 수단으로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40)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1979. S. 158—168

독어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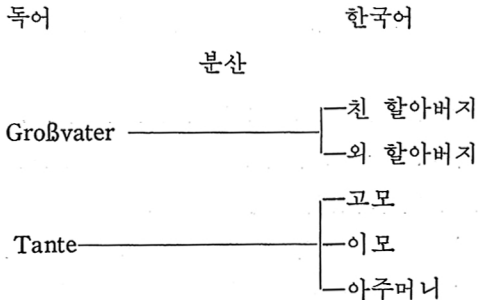
Base—염기

Säule—산

fünf—다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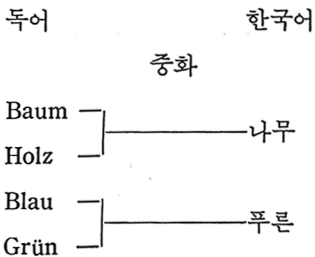
2) 1 : 다수

이것은 출발어 1개의 표현이 목표어 다수의 표현과 일치하는 경우인데, 목표어 표현에서 분산 *Diversifikation* 형태로 나타나므로 출발어 표현과 일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어떤 표현이 출발어와 일치하는지는 텍스트연관 *Textzusammenhang* 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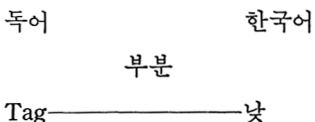
3) 다수 : 1

위의 현상과 반대인데, 출발어의 입장에서 볼때 중화 *Neutralis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4) 1 : 부분

출발어의 표현이 목표어의 표현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이다.



독어의 **Tag** 는 하루(24시간) 과 *Nacht* (밤) 의 대립인 낮을 표현하는데 반하여 한국어 낮은 다만 밤의 대립으로만 쓰인다.

5) 1 : 0

출발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현상은 상이한 언어들 사이에서 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번역활동에서 이경우는 외래어 *Fremdsprache* 내지 차용어 *Lehnwort* 를 사용하던가 새로운 조어 *Wortbildung* 가 요청된다.

독어	한국어
Käse	○
Butter	○
Brätchen	○

지금까지 언급한 일치의 다섯 가지 유형과 번역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말의 온도형용사의 의미를 출발어인 독일어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형용사의 구조적 의미론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에서 취급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두 언어사이에서 번역 문제를 가지고 취급해 보겠다.

온도형용사 *Temperaturadjektive*

우리 말에서 기후나 온도를 표시하는 낱말은 덩다부터 시작하여 춥다까지 최소한 43개의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온도형용사는 모두 주관적으로 동기되어진 의미를 가진다. 그 때문에 뜨겁다와 따끈하다 사이의 객관적인 온도 차이는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주전자에서 끓는 커피를 잔에 받아 마실 때 그들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뜨겁다 혹은 따끈하다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형용사에 있어서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은 주관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말의 온도형용사를 독일어와 비교해서 온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독 일 어	한 국 어	독 일 어	한 국 어	독 일 어	한 국 어
heiß	덥다	warm	뜨겁다	kalt	싸늘하다
	뜨겁다		뜨스하다		서늘하다
	따갑다		따스하다		사늘하다
뜨끈하다	뜨스하다	씨늘하다			
따끈하다	다스하다	싸느랗다			
따근하다	따사롭다		서느랭다		
		lau	미지근하다	사느랗다	
			매지근하다	쌀렁하다	
	뜨뜻하다	kühl	시원하다	설렁하다	
	뜨뜻하다		선선하다	찰다	
	따뜻하다		씨늘하다	차갑다	
	습다			춥다	
	따습다				

독일어 **kalt**의 의미 영역이 일치하는 한국어의 렉셈 Lexem 은 대략 19개인데 “온도형용사” “가치형용사”의 부류 Klasse 에서 명사⁴¹⁾와의 결합 *Kombination* 을 토대로 독일어의 **kalt**의 의미 영역과 한국어 19개 렉셈의 의미를 분석하여 일치점을 찾아 보려고 한다. 19개의 렉셈을 형태론적 *morphologisch*, 의미론적 *semantisch* 으로 분류하면 6개의 구를 이룬다.

개별어	부 류		온도형용사		가치형용사	
	렉 셴	명사와의 결합	추 상	물 건	추 상	물 건
독 일 어	kalt		+	+	+	+
한 국 어	1	춥다	+	+	-	-
		차다	+	+	+	+
		차갑다	+	+	+	+
	2	쓸쓸하다	+	+	-	+
		쌀쌀하다	+	+	+	+
	3	썰렁하다	+	+	-	-
		쌀랑하다	+	+	-	-
		설렁하다	+	+	-	-
		살랑하다	+	+	-	-
	4	씨늘하다	+	+	-	-
		싸늘하다	+	+	+	-
		서늘하다	+	+	-	-
사늘하다		+	+	+	-	
5	씨늘하다	+	+	-	-	
	싸늘하다	+	+	-	-	
	서늘하다	+	+	-	-	
	사늘하다	+	+	-	-	
6	선선하다	+	-	-	-	
	산산하다	+	-	-	-	

독일어의 렉셈 **kalt**는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물건명사, 가치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사람명사와 모두 결합한다.

A. 온도형용사

물건명사에 대해서

41) 전통적 문법 범주에 속하는 용어 “명사”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명사”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동일한 낱말 부류(품사)라고 할지라도, 이 명사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낱말들은 부류 Klasse에 의해서 또 분류되며 이 명사가 다른 낱말들과의 관계를 짓는 신타그마 Syntagma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여기서는 우선 “사람”(Person), “동물”(Tiere), “식물”(Pflanzen), “추상”(Abstrakta), “비추상”(—Abstrakta=물건)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보기에서 어떤 형용사가 “사람”을 표시하는 명사와 결합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표시하는 명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kaltes wasser
- kaltes Essen
- kalter, unvergitter Raum
- kalte Brillengläser

추상명사에 대해서

- kalter Tag
- kaltes Jahreszeit

B. 가치형용사(전위된 의미)

추상명사에 대해서(이 부류의 명사와의 결합은 흔하다)

- kaltes Picknick
- kaltes Freude
- kaltes Abschied
- unverschuldete kaltes Behandlung

사람에 대해서 (이 부류의 명사의 결합은 드물다)

- kalte Frau

다음에서는 한국어의 렉셈 6개의 구를 차례대로 언급해 보려고 한다.

1구름 : 춥지만 제외하고 **kalt** 와 같은 결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⁴²⁾

- 추운 날씨
- 추운 겨울

사물명사에 대해서

- 추운 방
- 추운 땅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추운 기쁨

42) 여기에서 결합가능성을 말하기 위해서 표시하고 있는 부류의 모든 명사가 전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추운 여자

2구룹 : 쌀쌀하다는 kalt 와 같은 결합 가늠성을 가지고 있다. 쓸쓸하다는 온도형용사에서는 추상명사, 물건명사와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치형용사에서는 제한적이다.

—*쓸쓸한 기쁨 그러나 쓸쓸한 기분

—쓸쓸한 사람

—쓸쓸한 노인

3구룹 : 여기에 속한 4개의 렉셈은 단지 온도형용사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추상명사와 물건명사와 결합가능하다.

—떨렁한 날씨

—떨렁한 방

—*떨렁한 기쁨, 의심, 충고 등

4구룹 : 여기에 속한 4개의 렉셈도 온도형용사와 결합 가능하지만 싸느랴다와 사느랴다는 가치형용사에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다.

—씨늘한 날씨

—씨늘한 온돌방

—*씨늘한 기쁨

—*씨늘한 여자

—싸느란 인정

5구룹 : 여기서도 4개의 렉셈이 온도형용사로서만 기능을 발휘하고 추상명사와 물건명사와 결합 가능하다.

—씨늘한 날씨(추상)

—씨늘한 교실(물건)

—*씨늘한 인정(추상)

—*씨늘한 여자(사람)

6구룹 : 이 그룹에 속한 두개의 렉셈은 단지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결합가능하다. 물건명사와 결합한다고 할지라도 결합된 명사가 아니고 오히려 공기의 온도를 문제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언제나 추상적인 명사와의 결합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선선한 날씨, 바람(추상)

—선선한 방(물건, 방안의 공기)

독일어 **warm** 은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물건명사, 가치형용사로서는 추상명사, 지각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다.

A. 온도형용사

물건명사에 대해서

- warmes Tuch
- warmer Kakao
- warme Jake

추상명사에 대해서

- warmer und süßer Backgeruch
- warmes Rauschen
- warme Jahreszeiten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warme Dankesworte
- warme Gefühl
- warme Ruhe

독일어 **warm** 의 온도 영역에 속하는 한국어의 렉셈은 모두 15개인데 렉셈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분류를 하면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그룹: 이 그룹에 속하는 렉셈은 **덥다**하나 뿐인데 다른 그룹에서처럼 유추적인 렉셈은 없다. 무엇보다 특이한 사항은 렉셈 **덥다**는 다른 14개의 렉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하여

- 더운 일기
- 더운 날씨

물건명사에 대하여

- 더운 온돌
- 더운 물
- 더운 밥

B. 가치형용사

개별어	부 류		온도형용사		가치형용사
	렉셈	명사와의 결합	추 상	물 건	추 상
독 어	warm		+	+	+
한 국 어	1	덥다	+	+	-
	2	뜻뜻하다	+	+	-
		따뜻하다	+	+	+
		뜨뜻하다	+	+	-
		따뜻하다	+	+	+
	3	뜨습다	+	+	-
		따습다	+	+	+
		드습다	+	+	-
		다습다	+	+	+
	4	뜨스하다	+	+	-
따스하다		+	+	+	
드스하다		+	+	-	
다스하다		+	+	+	
5	따사롭다	+	+	+	
	다사롭다	+	+	+	

추상명사에 대하여

- *더운 감사의 말
- *더운 마음씨

2구름 : 4개의 렉셈 모두 온도형용사에서 추상과 물건의 명사, 가치형용사에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나 뜻뜻하다와 뜨뜻하다는 가치형용사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뜻뜻한(따뜻한, 뜨뜻한, 따뜻한) 날씨(일기)

물건명사에 대해서

- 뜻뜻한(따뜻한, 뜨뜻한, 따뜻한) 국(온돌)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따뜻한(따뜻한) 인정
- *뜻뜻한(뜨뜻한) 인정

3구름 : 4개의 렉셈 모두 온도형용사에서 추상과 물건의 명사, 가치형용사에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나 뜨습다와 뜨습다는 가치형용사에서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뜨스운(따스운, 드스운, 다스운) 날씨, 기후

물건명사에 대해서

—뜨스운(따스운, 드스운, 다스운) 밥, 온돌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따스운(다스운) 인정

—*뜨스운(드스운) 인정

4구름 : 4개의 렉셈 모두 온도형용사에서 추상과 물건의 명사, 가치형용사에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나 뜨스하다와 드스하다는 불가능하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뜨스한(따스한, 드스한, 다스한) 날씨, 기후

물건명사에 대해서

—뜨스한(따스한, 드스한, 다스한) 온돌, 국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따스한(다스한) 인정

—*뜨스한(드스한) 인정

5구름 : 두개의 렉셈 모두 온도형용사에서 추상과 물건의 명사, 가치형용사에서 추상명사와 결합 가능하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따사로운(다사로운) 날씨

물건명사에 대해서

- 따사로운(다사로운) 온돌 그러나
- *따사로운(다사로운) 밥, 국

주의 : 한국어의 렉셈 **덥다**는 단지 온도형용사로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독일어의 렉셈 **warm** 이 가치형용사로 사용된 신타그마의 번역에서는 다른 구룹의 렉셈으로 대치해야 한다.

독어	한국어
warmes Wetter	→ 더운 일기
warmes Wasser	→ 더운 물
그러나	
warmer Empfang	→ 따뜻한 영접
warme Stimme	→ 따뜻한 목소리

독일어 **heiß** 는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물건명사, 가치형용사로서 추상명사, 감지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결합한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heiße Sommertage**

물건명사에 대해서

- heiße Wasser**
- heiße Quellen**
- heiße Kaffee**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ein heißer Kampf**
- eine heiße Debatte**
- heiße Liebe**
- mit heißer Begierde**

C. 감지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 heiße Musik**

—heiße Rhythmen

독일어의 heiß의 온도 영역에 속하는 한국어의 렉셈은 모두 6개인데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분류하면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어		부 류		온도형용사		가치형용사	감지형용사
		렉셈	명사와의 결합	추상	물건	추상	추상
독어		heiß		+	+	+	+
한국어	1	뜨겁다		+	+	+	-
		따갑다		+	+	+	-
	2	뜨끈하다		-	+	-	-
		따끈하다		-	+	-	-
		따근하다		-	+	-	
		따근하다		-	+	-	

1그룹 : 두개의 렉셈 모두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물건명사, 가치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 결합한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따가운(따가운) 날씨

물건명사에 대해서

—뜨거운(따가운) 난로, 온돌방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뜨거운 음악

—*따가운 리듬

2그룹 : 네개의 렉셈이 이 그룹에 속하는데 온도형용사로서 추상명사와는 결합하지 않고, 가치형용사와 감지형용사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A. 온도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뜨끈한(따끈한, 뜨끈한, 따근한) 날씨

물건명사에 대해서

—뜨끈한(따끈한, 뜨근한, 따근한) 온들, 난로

B. 가치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뜨끈한(따근한, 뜨끈한, 따근한)

C. 감지형용사

추상명사에 대해서

VII. 맺는 말

번역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번역이론 및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사에 나타난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토론을 했고 번역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분석해 보았다. 또 번역의 학문적인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언어학자들의 의미론에 관한 생각을 끌어들이 연관을 시켜 보았으며 번역의 최근 이론과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E. Coseriu와 O. Kade의 논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고 마지막으로 독일어와 우리말의 온도형용사를 자료로 하여 번역의 본질을 찾아 불려고 시도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본논문의 종결을 위해서 결론적인 서술을 해야만 되겠다.

번역행위는 우리 인간의 끝없는 호흡과 같이 쉬임이 없는 인간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역의 불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번역은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인류가 이 땅위에 생존하는 한 앞으로는 번역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취급된 여러 이론들에서 보았듯이 텍스트의 수준에서 번역은 대개의 경우 용이하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다. E. Coseriu의 주장대로 번역은 의미를 수단으로 구성된 출발어 텍스트의 의의를 목표어에 옮겨져야만 번역활동의 임무가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번역은 의사소통학적인 관점에서 그 본질이 명백하게 들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출발어 텍스트의 의의가 목표어의 수신자에게 이해되지 못했다면 그 번역행위는 실패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실패의 원인은 O. Kade가 언급했듯이 출발어 텍스트의 작성자, 번역가, 수신자편에도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J Albrecht, *Linguistik und Übersetzung*, Romanische Arbeitshefte 4, Tübingen 1973

L. Bloomfield, *Language*, London 1965

E. Coseriu, "Falsche und richtige Fragestellungen in der Übersetzungstheorie", in: W. Wilss (hrsg.)

- Übersetzungswissenschaft*, Darmstadt 1981
- “Leistung und Grenzen der transformationellen Grammatik”
- G. Helbig, *Geschichte der neueren Sprachwissenschaft*, Unter dem besonderen Aspekt der Grammatik-Theorie, München 1973.
- L. Hjelmslev, *Prologomena to the Theory of Language*, Baltimore 1953. Originalausgabe: *Omkring Sprogteoriens Grundloeggelse*, Kopenhagen 1943. Deutschesusgabe: *Prolegomena zu einer Sprachtheorie*, München 1974.
- L. Grähs/G. Korlén/B. Malmberg (hrsg.),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Nobel Symposium 99, Stockholm, September 6–10, 1976, Bern/Frankfurt a.M./Las Vegas: Lang 1978
- M. Ivić, *Sprachwissenschaft*, München 1971.
- R. Jakobson, “Linguistische Aspekte der Übersetzung”,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 Wilss), Darmstadt 1981. S. 189–198.
- O. Kade, “Kommunikationswissenschaftliche Problems der Translation,”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 Wilss), Darmstadt 1981. s. 199–218
-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1979
- G. Mounin, *Di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Anwendung, München 1967
- E. A. Nida, “Das Wesen des Übersetzens”, in: *Übersetzungswissenschaft*, (hrsg. von W. Wilss), Darmstadt 1981. S. 123–149
- Yong-Sam, Park, *Zur strukturellen Semantik des Adjektivs im heutigen Deutsch und Koreanisch. Eine kontrastive kassematische Untersuchung*. Diss. Tübingen 1982
- H.J. Störig (hrsg.),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1973
- W. Wilss (hrsg.), *Übersetzungswissenschaft*, Darmstadt 1981